

NEAR사무국, 홍보대사에 김경호 전 주러시아 공사 위촉(7.1)

관련 언론보도 스크랩

2020.07.01.(수)

| 번호 | 구분 | 매체명  | 제목                                           | 비고 |
|----|----|------|----------------------------------------------|----|
| 1  | 신문 | 영남일보 | 김경호 전 주러시아 공사,<br>동북아자치연합 '홍보대사' 위촉          |    |
| 2  | 신문 | 매일신문 | 김경호 대구 광역시 의료관광 자문대사,<br>동북아시아자치단체연합 홍보대사 위촉 |    |
| 3  | 신문 | 문화일보 | 동북아연합 사무국,<br>김경호 전 주러시아 공사 '홍보대사' 위촉        |    |
| 4  | 신문 | 대경일보 | 동북아연합 사무국,<br>김경호 전 주러시아 공사 '홍보대사' 위촉        |    |

## 김경호 전 주러시아 공사, 동북아자치연합 '홍보대사' 위촉

마창성 | 입력 2020-07-02



김경호 전 주러시아 한국대사관 공사

김경호 전 주러시아 한국대사관 공사가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국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NEAR는 최근 경북 포항에 있는 사무국에서 김옥채 사무총장을 비롯한 대내외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 전 공사의 홍보대사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김 전 공사는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수년 동안 고위 외교관으로 근무했으며 현재 대구시 의료관광 산업 자문 대사, 우즈베키스탄 내각 산하 고려문화협회 명예 고문 등을 맡고 있다.

NEAR는 동북아 지방자치단체 간 국제교류·협력을 위해 설립된 국제 협력기구로 1996년 9월 창설했다.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북한 등 6개 국가 78개 광역자치단체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상설 사무국은 2005년 포항에 설립됐으며 사무총장을 비롯해 국가분야별 전문위원과 북한을 제외한 5개 국가 지자체 파견 공무원이 팀을 이뤄 회원단체 간 국제교류 업무를 해당 국가 언어로 지원하고 있다. 마창성기자 mcs12@yeongnam.com

프린트

취소

주요뉴스

정치

경제

사회

생활

세계

사설/칼럼

매일신문

## 김경호 대구광역시 의료관광 자문대사, 동북아시아자치단체연합 홍보대사 위촉

본문듣기 설정

기사입력 2020.07.02. 오후 1:59

공감

0

요약봇



김경호 전 주러시아 한국대사관 공사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국은 지난달 30일 김경호 대구광역시 의료관광 자문대사를 사무국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김경호 홍보대사는 주러시아 한국대사관 공사를 비롯해 러시아·우즈베키스탄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다년간 고위외교관으로 근무했으며 현재 우즈베키스탄 내각 산하 고려문화협회 명예고문도 맡고 있다.

이날 위촉장을 수여한 김옥채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사무총장은 "김 대사의 경험과 풍부한 국제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앞으로 동북아연합 사무국에 대한 국제정세 자문 및 러시아 지역 담당 홍보대사로서 큰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은 동북아 지방자치단체 간 국제교류 및 협력을 위해 된 국제협력기구이다. 지난 1996년 9월에 창설된 이래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 몽골,

주요뉴스

정치

경제

사회

생활

세계

사설/칼럼

문위원과 북한을 제외한 5개국 지자체 파견 공무원이 팀을 이뤄 회원단체 간 국제교류 업무를 해당 국가 언어로 지원하고 있다.

김대호 기자 dhkim@imaeil.com

▶ 네이버에서 매일신문 구독하기

▶ 매일신문 네이버TV 바로가기

©매일신문 - www.imaeil.com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정치,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메인에서 바로 보는 언론사 편집뉴스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

구독

## 매일신문 주요뉴스

해당 언론사에서 선정하며 언론사 페이지(아웃링크)로 이동해 볼 수 있습니다.

[매부뉴스] 서대구 KTX 역세권 주목, 1만5천세대 분양계획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 다시 원점으로...왜?

윤석열 대망론에...정치권 '엇갈린 반응'

홍준표 "사형집행 부활"...진중권, 날선 비판

현직 해녀 가장 많은 제주 하도리...해녀의 삶 따라가보세요

반값 부스터 이벤트!

AD



모두의 쇼핑 카드  
Cool하게 50% 적립!  
하나카드

더 알아보기

구독한 기사는 네이버 MY뉴스에서 볼 수 있어요

## 문화일보 사회

기사 게재 일자 : 2020년 07월 01일

## 동북아연합 사무국, 김경호 전 주러시아 공사 '홍보대사' 위촉

박천학기자 [kobbla@munhwa.com](mailto:kobbla@munhwa.com)

김경호(사진) 전 주러시아 한국대사관 공사가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국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NEAR는 경북 포항에 있는 사무국에서 김옥채 사무총장을 비롯한 대내외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 전 주러시아 한국대사관 공사의 홍보대사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김 전 주러시아 한국대사관 공사는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수년 동안 고위 외교관으로 근무했으며 현재 대구시 의료 관광산업 자문 대사, 우즈베키스탄 내각 산하 고려문화협회 명예 고문 등을 맡고 있다.

NEAR는 동북아 지방자치단체 간 국제교류·협력을 위해 설립된 국제 협력기구로 1996년 9월 창설됐다.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북한 등 6개 국가 78개 광역자치단체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상설 사무국은 2005년 포항에 설립됐으며 사무총장을 비롯해 국가·분야별 전문위원과 북한을 제외한 5개 국가 지자체 파견 공무원이 팀을 이뤄 회원단체 간 국제교류 업무를 해당 국가 언어로 지원하고 있다.



포항=박천학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대경일보

HOME > 사람들

#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국, 홍보대사에 김경호 전 주러시 아 공사 위촉

✎ 권수진 기자 | ㉠ 승인 2020.06.30 18:08



▲ 김경호 홍보대사와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사무국 관계자들이 홍보대사 위촉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국은 지난달 30일 연합 사무국에서 김경호 전 주러시아 한국대사관 공사를 사무국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김경호 홍보대사는 러시아 및 우즈베키스탄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다년간 고위외교관으로 근무한 지역전문가로 현재 대구광역시 의료관광산업 자문대사, 우즈베키스탄 내 각 산하 고려문화협회 명예고문 등을 맡고 있다.

이날 위촉장을 수여한 김옥채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사무총장은, 김 대사의 경력과 풍부한 국제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앞으로 동북아연합 사무국에 대한 국제정세

자문 및 러시아 지역 담당 홍보대사로서 큰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은 동북아 지방자치단체 간 국제교류 및 협력을 위해 설립된 국제협력기구이다. 1996년 9월에 창설된 이래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 몽골, 북한 등 6개국 78개 광역자치단체가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경상북도가 유치한 상설 사무국은 2005년부터 포항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무총장 이하 국가별, 분야별 전문위원과 북한을 제외한 5개국 지자체 파견 공무원이 팀을 이뤄 회원단체 간 국제교류 업무를 해당 국가 언어로 지원하고 있다.

**권수진 기자** 5369k@naver.com

---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